

지역 소식 통

부안군, 어민 공익수당
4월 28일까지 신청 · 접수

부안군은 2023년도 수산업 · 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어민 공익수당)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각 읍 · 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어민 공익수당은 수산업 · 어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 보전 · 증진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수산업 · 어촌환경 조성 및 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등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금년도 신청대상은 2년이상 계속해 전라북도 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고, 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 경영체로서 신청년도 기준 2년 이상 계속해 등록(2020년 12월 31일 이전부터)을 유지하면서 어업 관련법에 따른 어업면허 · 허가 · 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어업을 실제로 경영한 어가로서, 연 60만원을 추산 전 부안사랑상품권 카드로 일시 지급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 농업 분야 신규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4차산업혁명으로 변화하는 농업의 환경 속에서 변화와 혁신을 통한 공직자들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신규공직자 급증과 농업 민원의 사전 예방을 위한 자체 교육이다. 공무원으로서 기본 상식을 갖추고 전문기술 습득과 업무효율 증대 등 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5년 이하 농업 분야 신규공무원 47명을 대상으로 6일부터 14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정읍농업정책 방향과 공무원의 역할'이라는 교육을 시작으로 농업보조금, 기초농업, 관련법, 문서작성, 예산 등 농업 전문성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농업분야 실무 위주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산불 예방 · 진화 ‘총력전’

정읍시, 6일 산불 감시 · 진화인력 발대식... 순찰 · 계도 활동 강화

정읍시가 봄철 산불 예방과 진화를 위해 6일 정읍시청 대회의실에서 산불 감시 · 진화인력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봄철 산불 비상 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학수 시장을 비롯한 산불감시원과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산불 담당 공무원 등 131명이 참석했다.

발대식에서는 산불감시원 74명과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35명을 위촉해 책임감 부여와 사기를 앙양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산불 감시 진화 임무 고지와 산불 예방 순찰 · 진화요령 등을

교육했다.

산불감시원은 앞으로 적극적인 산불 감시와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산림 인접지(100m 이내) 소각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해 소각에 의한 산불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는 산불 진화 장비(진화차, 급수차, 등짐펌프 등)를 수시로 점검해 산불 발생 시 초동진화와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며 평일 및 주말에 읍면동과 비상근무 체제를

확립할 계획이다.

특히 산불 예방 무인 방송시스템과 산불 감시 무인 카메라를 활용해 산불 방지 활동을 펼치고, 산불 안전 공간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등 선제적 산불 방지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영농 준비를 위한 논, 밭두렁과 농산폐기물 소각 등 봄철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아질 우려가 있다”며 “봄철 산불재난 예방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 단 한 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부안읍(읍장 김창조)과 주산면(면장 정춘수)은 6일 권익현 부안군수와 함께 하는 ‘창신비상(創新飛翔)’ 2023년 군민소통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부안군수와 함께 ‘창신비상’

부안 부안읍 · 주산면, 군민소통대회 성황리 개최

부안군 부안읍(읍장 김창조)과 주산면(면장 정춘수)은 6일 권익현 부안군수와 함께 하는 ‘창신비상(創新飛翔)’ 2023년 군민소통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된 부안읍 군민소통대회는 약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안읍 주민자치센터 강요교실 수강생들의 흥겨운 식전공연과 부안읍 이장단협의회(회장 김재희) 및 이장단협의회 무연고별초담(대표 김용화)의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장학금 기탁식 등 지역사랑 실천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뜻깊은 행사로 진행됐다.

군민소통대회에서는 김창조 부안읍장이 “새롭게 비상하는 역동적 부안읍”의 비전으로 2023년 부안읍 주요업무계획을 설명했으며 2022년 군정 주요성과 및 2023년 운영방향이 담긴 동영상을 시청을 통해 올 한 해 읍정 및 군정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권익현 부안군수와의 군민소통대회는 자유롭

게 개선된 주민의견에 대해 권익현 군수가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참석한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지역발전 및 현안사업에 관한 공적 담론의 장이 됐다.

이후 민생탐방에서는 마을경로당 2개소 및 사업현장 2개소를 방문해 어르신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사업관계자를 격려하는 등 직접 보고 듣는 현장행정을 마지막으로 부안읍 군민소통대회는 호평 속에 마무리됐다.

김창조 부안읍장은 “추운 날씨에도 참석해주신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2023년 세계스카우트페스티벌을 맞아 전 세계인이 찾아올 우리 부안을 보다 생동하는 축제도시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달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주산면 역시 이날 오후 2시 30분 주산면 게이트볼장에서 권익현 부안군수와 면민 등 100여 명이 함께하는 군민소통대회의 시간을 가졌다.

/부안=김석진기자

고창군, 고향사랑기부제 통큰 고액 기부 줄이어

6일 기준 100만원 이상 고액 기부자 19명... 술선수범 고향사랑 실천

고창군은 6일 기준 100만원 이상 고액기부자 19명, 금액은 4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날 출산인 김광중 재경군민회장은 최근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한도액인 500만원을 기탁했다.

김광중 회장은 2018년부터 지금까지 고창군 재경군민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지역 홍보 행사지원 등 고향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김 회장은 “고창에서 나고자란 저로서는 고창에 대한 애정이 특별하다”며 “많은 분들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고창에 대

한 사랑을 표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인구 감소 등으로 지방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고창군을 도울 수 있는 제도로 해당 기부금은 기금으로 적립돼 청년맞춤형 사업, 관계인구 관련 제도 지원 등 필요한 사업에 사용될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으며, 고향사랑은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전국 농협을 방문해 기부하면 된다.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초과분은 16.5%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기부액의 30%이내에서 고창군 기준 31가지 지역특산물을 선택하여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조성된 기금이 마중물이 되어 10만 관계인구 사대를 열고 청년이 돌아오는 고창만들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해주신 김광중 재경군민회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이학수 정읍시장, ‘빈틈없고 꼼꼼한 현안업무 챙기기’ 당부

이학수 시장이 6일 영상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빈틈없고, 꼼꼼하게 현안업무를 챙겼다.

이 시장은 우선 2024년도 시행할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신청에 많은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농림축산식품사업은 농촌 구조개선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정읍시에 맞는 다양한 농정시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읍 · 면 · 동 이통장회의 등을 통해 많은 시민에게 알려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민원 처리 시 친절환 응대와 세세한 설명도 강조했다.

특히 “답변 시에는 민원 업무에 대



해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실정에 밝은 6급 이상의 직원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오는 14일부터 시작하는 시민과의 대화에서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을 것”이라며 “현장의 의견에 대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민원인 만족도가 떨어지면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도 커진다”며 “시민들의 말에 더 귀 기울이고 더 소통해 모든 시민이 공감하는 행정으로 청렴도를 올려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와 함께 건조한 날씨와 본격적인 영농 준비에 따른 논 · 밭두렁, 생활쓰레기 등의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방지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산림청 ·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강화하는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산불 방지 운영계획과 초동진화 체계 구축 계획을 철저히 세워 달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청년 취업시험 준비반’ 개강

코로나19와 경기 불황으로 고용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가 청년들의 취업과 사회 진입을 돕고, 전문 직업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청년들이 정읍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인 취업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6일부터 ‘청년 취업시험 준비반’을 본격 운영한다.

‘청년 취업시험 준비반’은 공무원 또는 공기업 시험 준비를 위해 수도권 등 대도시로 올라가 막대한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지역 자급과 인구가 유출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청년층이 타 시 · 군으로 유출되면서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경제가 침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맞춤형 정책이다.

운영과정은 공무원 직장 과정(A)과 공무원 동영상 과정(B), 공기업 NCS 직장 과정(C) 3개 과정으로 진행된다.

시는 사업추진을 위해 시험준비반 참여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1차 선발된 수강생 48명을 대상으로 6일 평생학습관에서 개강식을 가졌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